

지역 매아리

고창군, 지역 축제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

고창군(군수 유기상)은 12일 2층 상황실에서 정로진 부군수, 고창군축제추진위원회, 축제추진단체, 축제주관 담당집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개최된 지역 축제를 평가하고 2019년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2018년 지역축제 평가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평가대상 축제는 고창청보리밭축제, 고창북분지와수박축제, 고창갯벌축제, 고창해풍고추축제, 고창모양성제, 고창국화축제 등 6개 축제에 (사)남도관광정책연구원에서 평가용역을 수행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축제에 참여한 관광객들에게 설문조사 결과 자료를 토대로 축제의 만족도 및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했다.

평가에서 청보리밭축제는 방문객들의 체류시간이 매우 낮아 체험 프로그램 확대가 개선 사항으로 지적됐다. 고창북분지와수박축제는 축제장 안내 표지판 설치와 축제장 곳곳의 차광막 설치, 고창갯벌축제는 음식부스 청결과 안내 서비스 전문성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고창모양성제는 고창읍성 역사에 대한 콘텐츠 개발, 부스 운영시간 및 판매 메뉴 중복에 대한 관리, 고창국화축제는 핵심적인 조형물 추가 필요, 품목별 메뉴별 적절한 부스 구분 배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수상 영예

부안군은 올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8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지자체로 선정되어 12일 서울정부청사 별관2층 대강당에서 인증서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발굴성과 등 26개 진단항목을 기준으로 규제혁신의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하고 규제혁신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부안군에서는 농촌융복합시설 추진을 위한 조례완화, 곰소만내측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건의, 창년어업인 영여정착자금 지원대상확대, 관광지에 대한 전선지중화 설치부담금 제도개선 등 개선안건을 발굴하여 국무조정실 조정회의 안건으로 제출하는 등 협업행정으로 중앙부처 법령개정을 이끌어내고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등 규제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서 함께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교부받았으며 2019년 2월중으로 기관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부안=김영진 기자

대한민국 대표하는 친환경고창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종합대상 · 생태도시대상 · 친환경지방자치단체장상 3관왕 달성

고창군(군수 유기상)은 12일 서울 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시상식에서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종합대상'에 5년 연속 선정의 위업을 달성했다. (사)한국환경경보연구원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친환경도시를 평가하고 모범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친환경도시대상 에코시티를 매년 선정 및 발표하고 있다. 올해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종합대상' 시상식에선 고창군 외 4곳의 지자체가 수상했다. 고창군은 '생태도시대상', '친환경

지방자치단체장상'에 이어 '에코시티 종합대상'까지 휩쓸며 명실상부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진면목을 대내외에 알리게 됐다.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은 자연의 현명한 보전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고창읍성 일원에 생태휴식공간 고창 자연마당 조성, 국가지질공원 인증, 고창 운곡탐사트습지 일원의 생태타운 조성, 주민환경 교육 등에 매진하고 있다. 이밖에 행정과 군민이 하나 돼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친환경·생태적 정책을 추진하는 등 환경분야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종합대상 5년 연속 수상은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이 어려움 속에서도 생태환경을 지켜가는 소중한 가치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민선 7기 군정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생태관광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립요양병원 전경.

체계적인 관리로 종합적인 노인의료서비스 제공

정읍시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 조성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립요양병원의 치매 전문병동 확충을 위해 정읍시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증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설계용역, 보건복지부 시설 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관내 치매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물론 수준 높은 치매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케 되고, 치매환자 보호 관리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능수행에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안심요양병원은 공립요양병원 중 인력 및 병상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치매

전문병동 설치, 프로그램실 확충, 치매 진단·치료 장비 등의 기능보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가 전문적인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비 20억4300만원과 시비 5억 1075만원 등 총 25억5375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3층 규모의 치매전문병동을 증축하여 분관과 연결하는 사업이다. 치매병동은 1층에는 가족교육실과 프로그램실로 구성되며, 2층과 3층은 치매환자 입원실로 10병실 36병상이 들어선다. 이로 인해 기존 본관의 28병상을 포함하여 총 64병상을 운영케 된다. 또한 환자감시장치 등 9종 157

대의 의료장비를 구축하고, 치매 전문병동 운영시작에 맞춰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전담간호사를 배치하는 등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시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 증축사업이 초고령화에 따른 치매질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치매 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치매 전문병동을 확대하여 치매환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서적 안정까지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노인의료서비스 제공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지적재조사사업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일 신태인2지구와 장명상동지구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내일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예비선정된 신태인2지구와 장명상동지구의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시작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는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들의 사업관심도 고취와 사업의 대대적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사전 주민설명회는 사업지구별로 나누어 각각 개최된다.

신태인2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오전 11시 신태인읍사무소 2층에서 실시되며, 오후 3시에는 장명상동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정읍시보훈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실시된다. 두 장소 모두 사업지구 인근에 위치해 있어 주민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와 주민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장소이다.

유진섭 시장은 지난 9월에 개최했던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주관하는 자리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합치를 해소해 가면서 선진화 된 지적제도를 정착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부서 공무원에게 강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지

적도면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최첨단 측량방법으로 현실경계를 반영하여 지적도면을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시는 이번 사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협조와 관심을 유도하여 지난해에 이어 성공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장명상동지구는 관포로를 가로지르는 상업지와 주거지가 혼재한 지역으로 사업의 추진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태인2지구는 신태인읍사무소 앞과 신태인성당 일대를 추진했던 신태인1지구 이후 연계 추진되는 지역으로 어느 곳보다 주민들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신태인1지구와 초산1지구의 사전 주민설명회에 200여 명이 참석한 만큼 지역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재확인한 시는 이번에도 빈틈없는 준비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설명회에 올 수 있도록 남은 기간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미세먼지 대응에 적극

환경취약계층에 마스크 보급

정읍시(시장 유진섭)가 어린이와 노약자 등 환경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대기질은 단기간에 개선할 수 없고 최근 인체 위해성이 더 큰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보급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거점배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보건용마스크(KF80)-미세먼지 마스크 13만2천여개를 구입해 이달 14일까지 23개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배부할 예정이다. 이 어 각 읍면동은 배부 받은 마스크를 어린이집(7개소), 지역아동센터(29개소), 유치원(39개소)의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에게 1인당 3~4개씩 배포할 계획이다.

최근 계절적으로 북서풍에 의한 국내·외 등에서 고농도 미세먼지(PM-10) 유입과 난방시설 가동 및 대기 정체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

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예보에 나쁨과 주의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에서 미세먼지 대응에 적극 나선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보급하는 마스크는 미세입자를 80% 이상 차단하여 황사, 미세먼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으며, 외출 시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고 세척하여 사용하거나 재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덧붙여 "고농도 미세먼지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만 의존할 수 없는 실정으로 앞으로도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올 한해 시에서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지원 40대 7억2000만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588대 7억230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8대 40백만원을 지원했고, 노면청소차 2대를 확대 운영해 도로에서 비산되는 먼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토록 노력해 왔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three bottles of wine on the left. On the right, there are several smaller images showing different gift sets of wine. Text in the center and right describes the wine's quality, mentioning it is made from wild ginseng and mulberry, and is suitable for gifting. The a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Gangsanmyeongju at the bottom right.